

# 평생교육 단과대학 성인학습자의 직업기초능력 분석: Y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류 영 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융합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다양한 변수분석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지속적 학업제고, 비교과 프로그램 구조화, 진로 재설계, 프로그램 재설계, 교양교육과정 재구조화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동남권 지역 Y대학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측정도구를 선정하여 직업기초능력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빈도분석의 긍정률과 기술통계 결과는 문제의 수시 모니터링, 컴퓨터와 기자재 활용 능력, 리더십, 발표 능력, 진로 비전 설정에서 긍정률과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둘째, 일원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연령, 학년, 경제활동, 고교졸업유형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연령은 높고 학년은 낮으며 비정규직이고 검정고시 출신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리더십 제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보고서 쓰기, 발표능력, 창의적 업무적용은 문제해결의 긍정성, 진로비전의 명확성, 도덕역량, 컴퓨터 활용능력 등이 인과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교육과정의 재구조화와 연계가 필요하다. 직업기초능력 향상 과정이 대부분 교양과정으로만 편편화되어 있고 전공과목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므로 교양과 전공과목과의 실질적 연계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둘째, 직업기초능력향상방안은 교양교과 뿐만 아니라 전공교과안에서도 이론 및 프로젝트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 이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의 교육 기간 내에 직업기초능력을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어: 평생교육단과대학, 미래융합대학, 직업기초능력, 직업기초역량, 성인학습자

\* 이 논문은 2023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저자: 류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래융합학부 교수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E-mail: ksun072@bufs.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한국사회에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더 가중되는 가운데 2016년 교육부는 성인 학습자 전담 단과대학 9개교를 시작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2017년에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으로 개편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이 학령기 학생과는 별도로 평생학습자만을 전담으로 평생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품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에서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지원 성인 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대학(미래융합대학)을 2023년 50개에서 2027년에는 70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교육부, 2022).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교육부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주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은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로 이어지는 체제모형에 기초해볼 때, 대부분의 성과가 프로그램 운영직후 또는 운영 후에 나타나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성과평가 논의에 있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궁극적 목표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장완, 김효선, 안현용, 2021). 라이프 사업성과의 본질을 범위를 좁히면 이는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융합대학)에 재학하는 성인학습자의 역량제고와 새로운 모델 창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분야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에 대한 실증연구는 학령기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서성수, 심미경, 2021; 하오선, 2019; 하오선, 김수영, 2018; 임명희, 황유진, 2021).

특히 성인학습자 연구는 대학생활 경험과 적응

(구유정, 오석영, 박수연, 2021; 박혜경, 2021), 참여 동기나 만족도(안현용, 2020; 정혜진, 김경원, 2018), 학습성과 요인(임명희, 황유진, 2021) 등이 대부분이고 이 또한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재학하는 성인 학습자보다는 사이버대학이나 시간제등록생, 만학도, 평생교육원에 재학하는 성인학습자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수 학령기 대학생의 역량 연구에 비해 성인학습자의 실제 역량 분석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재학하는 성인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한 역량분석 연구는 매우 부족(류영철, 2022)하다.

역량분석 연구는 성인학습자가 학령기 대학생과는 달리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학습수준 격차가 있음(양은아, 2020)에도 불구하고 강의중심수업을 수업시간만 야간이나 주말로 배정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학교적응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었다(이현경, 이지연, 2017). 이에 평생학습시대에서의 성인학습자 역량을 분석하는 것은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고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확장을 통해 평생교육저변을 넓힌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사회가 제4차 산업혁명과 신자유주의가 팽배한 사회로 변화되면서 경쟁과 취·창업은 병렬구조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취·창업을 위한 직업소양과 진로교육이 강화되었다. 이를 위해 중학교는 자유학기(년)제가 실시(2016이후)되고 고교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도입한다.

홀랜드로 대표되는 진로적성검사와 요즘 유행하는 MBTI성격검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하는 검사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더 이상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차이가 적어도 취업이란 측면에서만 보면 줄어들고 있다. 전문대 중 보건계열 대학은 보통 3~4년을 재학하여 재학기간만 보면 4년제 대학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전문대의 명칭도

규정변경에 의해 대학이라고 명칭을 사용한다.

4년제 대학의 인기학과도 보면 실상 취업이 잘되는 학과나 취업에 유리한 국가자격증이 발급되는 곳이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미래교육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 중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협력적 소통역량은 달리 보면 직업기초소양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22 개정교육과정,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등을 통해 직업기초능력과 역량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직업기초능력 연구동향 분석(류지은 외, 2016)을 보면, 연구대상이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학령기 학생과 전문대 재학생, 직업계 고교생이 높은 비율이고 연구주체가 직업기초능력 진단 및 평가 도구 개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직업기초능력 분석 연구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지속가능성과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의 연속성, 직업기초능력 연구의 확장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Y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동남권의 대표적인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서 2023년 기준으로 총 8개의 학과와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Y대학교는 2009년 교육부의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교육부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동남권 대학 중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재학하는 성인학습자의 직업기초능력 분석을 통해 향후 평생교육단과대학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과정 재구조화 등을 통한 학습력 제고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다른 평생교육 단과대학과 앞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대학을 위한 도움을 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

는 ‘Y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자의 직업기초능력은 항목별, 연령별, 학년별, 경제활동별, 고졸졸업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어떤 영향을 받는가?’로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했다.

## 2. 이론적 배경

### 1) 직업기초능력(역량)의 개념과 요인탐색

직업기초능력은 basic workplace skill, key competencies, core competencies, core skills, common skills, basic skills, generic skills, workplace basics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 우리나라도 핵심역량, 공통능력, 기초능력, 기초직업역량 등 다양하게 사용한다(김선희, 권영심, 신지숙, 2012).

직업기초능력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로 구성되어 있다(김선연, 유호정, 2013). 직업기초능력은 직업형태, 직무특성 및 역할에 관계없이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역량으로서 인지적 능력 및 관계적 능력, 태도와 품성으로 구성된다(박동열, 주인중, 진미석, 최선아, 2010).

홍아정, 조윤성, 박지경(2015)은 직업기초역량을 생애에 걸쳐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생애역량 관점 및 고용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특히, 대학생의 직업기초역량은 ‘미래사회에 능동적, 주체적으로 대처하며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생애 전반 영역에서의 핵심역량’으로 이해하였다.

김선희, 권영심, 신지숙(2012)은 전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6개 영역의 분석에서 문제해결능력이 가장 낮고 직업윤리가 가장 높았다.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다른 영역도 뛰어났다. 특히 문제해결 능력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제시 및 자신활동 모니터링, 실현가능

목표 및 방향설정능력이 낮았으며 의사소통능력에서는 보고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능력이 낮았다. 자기개발능력에서는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활용 및 자신능력인식측면이 낮았다.

영국 고등교육 Dearing 보고서(Dearing Report on Higher Education, 1997)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이 모든 학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졸업이후 어떠한 직업생활을 수행하는 미래에 성공하기 위한 핵심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수리적 사고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 학습방법 학습을 제시하였다(Dearing, 1997).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직업기초능력이 전공 교과목 도움 정도 및 필요도 파악(이종화, 김재도, 정인호, 2015)을 보면, 직업기초능력 하위요인 가운데 기술능력, 의사소통능력이 전공과목 도움 정도 및 필요도에 직접영향을 미쳤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과 취업과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조희형, 2018)를 보면, 직업기초능력 중 이해능력, 사고력, 문제처리 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팀워크능력, 협상 능력이 높으면 취업이 더 잘되었다. 특히 취업자는 자기관리(자기주도학습), 경력관리 및 협상 능력 필요성 인식정도가 높았다. 전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하위능력 간 영향관계(조희형, 2017)를 보면,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이 높고 정보능력, 기술능력이 낮았다. 또 컴퓨터활용능력, 기초외국어능력, 경력개발능력, 문서작성 능력과 기술이해능력이 낮았다.

폴리텍대학 직업기초능력의 학생인식과 실태(노정진, 2011)를 보면, 자기개발능력은 자기관리가, 의사소통능력은 자기표현이, 대인관계능력은 네트워크이, 문제해결능력은 사고력이 가장 낮았다.

대학의 직업기초능력교육에 대한 학생인식(이은화, 윤소정, 허승희, 2011)을 보면,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기초능력교육이 부족하고 이 또한 대부분 교양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 전공교육과의 연계를 학생에게만 맡기고 있어 직업 기초능력

의 적극 활용이 미흡해 학생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취업역량에 관한 대학생 교육요구도 분석(이종찬, 2019)을 보면, 취업역량에 관한 대학생의 최우선 교육요구 우선순위는 인턴, 직무역량, 입사지원서, PT 면접, 영어면접, 토론면접 순이었다. 대학생이 중요성은 높으나 개발정도가 낮다고 인식한 직업기초능력은 자기개발능력과 협상능력이었다(이진옥, 김진영, 2016). 대학생은 자기개발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이 우선 고려항목이었다(홍아정, 조윤성, 박치경, 2015). 대학생 직업기초역량 하위요인에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집중노력영역’은 구직기술습득, 정보·기술 및 자원 활용능력, 자기개발능력이었다(문윤경, 오현주, 김미경, 2019). 대학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요구는 아이디어 확산 및 수렴, 외국어, 발표 등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주요 순위이었다(신윤미, 오미자, 2021).

## 2) 미래융합대학과 성인학습자

이병준, 박정현(2021)은 성인친화적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①인문교양 교육과 직업교육의 효율적인 통합적 교육과정의 운영 강조 ②성인의 생활경험, 직무경력, 성인학습자의 선행학습 결과물이 입시, 선발, 학점인정으로 대체 필요 ③성인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육매체 및 정보제공,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개발, 진로 및 직업설계 지원, 유연한 등록금 조달방식, 의무이수 학점 최소화 같은 성인친화적 지원시스템 구축필요 ④세대 간 공동학습과정 활성화를 위해 일반대학생과 성인대학생간의 교육과정을 분리 운영하지 말고 상호 자유로운 수강신청 및 교체 학점이수가 허용되는 학사규정 유연화가 필요하다.

임영희, 심현(2018)은 성인 및 재직자를 위한 대학학위과정 운영실태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학위과정평생교육과정 운영은 이해관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학습자요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야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기초역량 및 정보활용역량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자기개발, 대인관계 등의 직업기초소양 역량 교육과 직업기초 및 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한 전공지식 기술 역량 교육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성인학습자가 재학하면서 일과 계속·평생학습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강의시간 및 형태가 유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시·공간적 제약을 감소시키는 교육운영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민재, 연지연, 이현주(2021)는 대학의 성인학습자 대상 의사소통교육 요구분석을 성인학습자와 교수자·교육행정가를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개발 측면에서는 학술적 의사소통 능력과 직무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교육과정 및 내용은 본래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계 및 개발된 것으로 성인학습자의 특성, 학습여건, 학습 능력, 학습자의 요구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학습자의 직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 3) 직업기초능력(역량)의 향상방안

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기초능력 함양에 도움을 주는 것은 의사소통능력,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이었다. 또 대학 프로그램은 학년이 높을수록 직업기초능력 함양에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서금택 외, 2017).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리더십이 높을수록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이재한, 임상호, 2017). 여대생에게 의사소통프로그램을 통

해 언어적 의사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박홍성, 고혜신, 2018). 전문대학생의 디지털 역량은 직업기초능력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학습양식별로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차별화가 필요하다(이애화, 최명숙, 2017).

대학생 대상 직업기초능력향상 액션러닝 수업을 통해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이 향상되었다(이현주, 장경원, 2013). 전문대학생 대상 교양교과를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었다(최윤경, 2017). 전문대학생 대상 프로젝트(문제) 기반학습이 의사소통능력과 팀협업능력이 향상되었다(주현재, 김현우, 2016). 대학생 대상 디자인씽킹 기반 교양교육은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영주, 2020).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Y대학 미래융합대학에 재학 중인 각 전공별(8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시대에서의 성인학습자 직업기초능력을 온라인 설문문을 통해 심층분석 했다. 조사대상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재학 중인 Y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총 10일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구글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문자발송을 통해 해당 링크를 클릭한 후 자기기입을 통해 설문하였다. 표본추출은 편의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도구는 SPSS 20.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크기는 총 349명을 선택하였다. 전체 모집단은 총 633명이

었다. 설문조사 참여율은 55.1%이었다.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20.6%이고 여자가 79.4%로 여자가 훨씬 더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4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27.5%, 60대가 18.6%로 많았다. 나머지 30대와 70대는 각 4.3%로 비율이 적었다.

학년은 3학년이 33.0%로 가장 많았고, 1학년이 32.1%이었다. 다음으로 4학년이 17.5%이었고 2학년은 17.2%이었다. 입학전형은 성인학습자 일반전형이 73.6%로 가장 많았고 편입이 14.6%이었다. 다음은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특별전형이 11.2%이었다. 학과는 사회복지학과가 41.0%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학과가 16.6%, 아동가족상담학과가 12.9%, 헬스케어학과 8.6%, 미용건강관리전공과 웰빙조리창업전공은 7.7%, 실버재활전공 2.6%, 인문문화융합학과 2.0%이었다.

졸업고교는 특성화고가 42.4%로 가장 많았고 일반고가 39.0%, 성인학습고 9.7%, 검정고시가 5.2%, 방송통신고가 3.7%이었다. 직업은 자영업이 26.4%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이 23.5%, 무직이 21.5%, 프리랜서가 14.6%, 비정규직이 14.0%이었다.

<표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분류	N(명)	비율(%)
성별 (N=349)	남자	72	20.6
	여자	277	79.4
연령 (N=349)	30대	15	4.3
	40대	96	27.5
	50대	158	45.3
	60대	65	18.6
	70대	15	4.3
학년 (N=349)	1학년	112	32.1
	2학년	60	17.2
	3학년	115	33.0
	4학년	61	17.5
	휴학생	1	.3

구분	분류	N(명)	비율(%)
입학 전형 (N=349)	일반전형	257	73.6
	특성화고졸업 재직자특별전형	39	11.2
	편입	51	14.6
	전과예정	2	.6
학과 (전공) (N=349)	부동산학과	58	16.6
	사회복지학과	143	41.0
	아동가족상담학과	45	12.9
	헬스케어학과	30	8.6
	미용건강관리전공	27	7.7
	웰빙조리창업전공	27	7.7
	실버재활전공	9	2.6
	인문문화융합학과	7	2.0
	복수전공	3	.9
졸업고 (학력 취득)	일반고	136	39.0
	특성화고	148	42.4
	성인학습고	34	9.7
	검정고시	18	5.2
	방송통신고	13	3.7
직업 유무	정규직	82	23.5
	비정규직	49	14.0
	무직	75	21.5
	자영업	92	26.4
	프리랜서	51	14.6

## 2. 측정도구

직업기초능력 설문을 위한 측정도구인 척도선정을 위해 전문가협의회(평생교육 단과대학 재직 교수 5명, 경력 20년 이상)를 2차례 가졌다.

직업기초능력 척도선정은 아래의 7가지 측정도구 중에서 결정하였다. ①박동열(2006): 직업기초능력 측정 검사도구(문제해결 및 발표능력, 기술활용능력, 자원활용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의 7개 영역 총 147개 행동진술문 [문항]) ②박동열, 주인중, 진미석, 최선아(2010): 직

업기초능력 모형(3개의 직업기초능력영역[사고지향, 관계지향, 자기개발지향], 8개의 능력요소[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자원·정보기술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직 및 문화이해능력, 자기관리능력, 진로개발능력], 20개의 세부요소[분석적사고, 평가적사고, 창의적사고, 기초연산활용, 수치 및 도표해석, 자원활용, 정보기술활용, 협업, 네트워크관리, 갈등관리,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 비언어적의사소통, 조직이해, 글로벌 문화이해, 자기조절 및 관리, 자기주도적 학습, 직업윤리, 진로설계 및 실천, 변화 대응]③박동열, 황영아(2009): 전문계 고교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12개 영역: 문제해결, 의사소통, 정보활용, 도구활용, 수리, 국제문화이해, 조직체계이해, 리더십, 팀워크, 갈등관리, 경력개발, 책임감 및 자신감 ) ④한현우(2021): 전문대 직업기초역량 측정도구(6개 역량군[문제해결, 협업, 문화, 공동체, 소통, 가치]), 27개 문항 ⑤김유리, 안도희(2015): 대학생 구직역량 척도 개발 (3요인[직업탐색, 직업동기, 직업핵심기술], 8개 하위요인[직업정보탐색, 직업이해, 자기이해, 구직의도, 대인관계기술, 의사소통기술, 의사결정기술, 직업적응기술] 38개 문항 ⑥김선연, 유호정(2013): 지방대학생 직업기초역량 진단도구(5개 영역[관계, 학습, 창의, 전문, 글로벌]) 54개 문항 ⑦김선희 외 (2012): 전문대학 재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6개 영역[문제해결능력, 기술·정보활용,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자기개발]) 35개 문항 등 전체 7개 측정도구 중에서 전문가협의회를 2번 거쳐서 최종 결정하였다. 2번에 걸친 전문가협의회의 최종 협의를 통해 김선희 외 (2012)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유는 첫째, 성인학습자는 학령기 4년제 학생보다는 성인학습자가 많고 수준도 비슷해 보이는 전문대학생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문항이 좀 더 세부적이어서 더 정확한 직업기초능력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인학습자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문항

수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최종 직업기초능력 측정 척도 조사지는 김선희, 권영심, 신지숙(201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했으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문제해결능력(1~6), 기술(정보)활용능력(7~11), 대인관계능력(12~18), 의사소통능력(19~25), 직업윤리(26~29), 자기개발(30~35)로 구성되었다.

### 3. 절차

연구는 문헌분석과 설문조사분석의 2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일반화와 맥락적 의미 도출 모두를 밝히고 해석하는 데 노력했다.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과정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은 ①성인학습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문헌 등) 분석을 했다. ②미래융합대학(구, 평생교육단과대학) 관련 선행연구(문헌 등) 분석을 했다. ③직업기초능력(역량)의 개념, 영향, 향상방안 등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문헌 등) 분석 등을 했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분석을 실시했다. 평생학습시대에서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직업기초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했다. 설문은 온라인 설문(구글)을 활용해서 취합 및 분석했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측정도구는 직업기초능력 35개 문항으로 이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셋째, 자료처리 및 분석이다. 온라인 설문으로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통계분석은 IBM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했다. 주요한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다. 특히 일원분산분석은 Tukey 방법에 의한 사후분석방법을 활용했다. 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인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 Ⅲ. 결과

#### 1. 빈도분석(긍정률<sup>1)</sup>)과 기술통계 결과

##### 1) 문제해결능력

빈도분석(긍정률)은 문제원인모색의 긍정률이 69.1%로 가장 높았다. 문제해결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긍정률은 39.2%로 가장 낮았다(김선희 외, 2012). 실현가능목표나 방향설정의 긍정률은 54.7%이었다. 문제해결의 긍정태도 긍정률은 61.0%이었다. 문제해결을 위한 수시모니터링 긍정률은 48.4%이었다. 문제해결단계의 우선순위 설정 긍정률은 62.1%이었다. 기술통계는 우선순위설정은 평균(M=3.69)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는 평균(M=3.34)이 가장 낮았다.

##### 2) 기술(정보) 활용능력

빈도분석(긍정률)은 컴퓨터 활용능력의 긍정률이 35.6%로 가장 낮았다. 반면 수집정보의 적극적 활용 긍정률은 49.3%로 가장 높았다. 기자재 활용능력의 긍정률은 37.0%이었다. 정보수집의 긍정률은 46.1%이었다. 기록습관의 긍정률은 45.0%이었다. 기술통계는 기자재활용과 기록습관의 평균(M=3.40)이 가장 낮았다. 반면 컴퓨터 활용의 평균(M=3.61)이 가장 높아 다소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 3) 대인관계능력

빈도분석(긍정률)은 타인배려의 긍정률이 75.9%

로 가장 높았다. 반면 리더십과 타인에게 방향제시 긍정률은 51.3%로 가장 낮았다. 타인조력의 긍정률은 72.2%이었다. 다수와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의 긍정률은 59.1%이었다. 팀구성원과 협력의 긍정률은 68.2%이었다. 작업 시 타인의 적절한 반응의 긍정률은 63.3%이었다. 다양한 사람과 어울림의 긍정률이 53.9%이었다. 기술통계는 타인배려 평균(M=3.96)이 가장 높았으나 타인 어울림의 평균(M=3.57)이 가장 낮았다.

<표 2> 빈도분석(긍정률)과 기술통계 결과 1

구분	항목	긍정률(%)	M	SD
문제해결 능력 (N=349)	원인모색	69.1	3.61	.717
	창의적아이디어 제시	39.2	3.34	.759
	방향설정	54.7	3.56	.735
	긍정적태도	61.0	3.65	.745
	모니터링	48.4	3.43	.776
	우선순위	62.1	3.69	.701
	평균	55.8	3.55	-
기술활용 능력	컴퓨터활용	35.6	3.61	.745
	기자재활용	37.0	3.40	.844
	정보수집	46.1	3.49	.786
	기록습관	45.0	3.40	.844
	정보활용	49.3	3.49	.786
	평균	42.6	3.48	-
대인관계 능력 (N=349)	어울림	53.9	3.57	.787
	타인배려	75.9	3.96	.740
	타인조력	72.2	3.65	.745
	팀구성	59.1	3.65	.745
	팀협력	68.2	3.78	.744
	리더십	51.3	3.91	.746
	리액션	63.3	3.71	.742
평균	63.4	3.75	-	

1) 긍정률은 리커트 5점 척도에서 '4=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만을 포함한 비율을 의미한다.

#### 4) 의사소통능력

빈도분석(긍정률)은 발표능력의 긍정률이 37.3%로 가장 낮았으나 동료의견 이해능력에 대한 긍정률은 63.0%로 가장 높았다. 논리적 언변능력의 긍정률은 56.1%이었다. 보고서 전달내용 작성의 긍정률은 53.0%이었다. 문서내용 이해능력의 긍정률은 56.2%이었다. 비언어적 표현능력의 긍정률은 51.3%이었다. 수준에 맞는 대화능력의 긍정률은 54.1%이었다. 기술통계는 보고서 작성 평균(M=3.73)이 가장 높았으나 발표능력의 평균(M=3.22)은 가장 낮았다 (김선희 외, 2012).

#### 5) 직업윤리

빈도분석(긍정률)은 근무태도와 자질소유의 긍정률이 63.9%로 가장 낮았다. 직업 윤리의식의 긍정률은 74.0%로 가장 높았다. 직업 자부심의 긍정률은 67.3%이었다. 소명의식의 긍정률은 70.7%이었다. 기술통계는 태도와 자질의 평균(M=3.73)이 가장 낮았으나 윤리의식의 평균(M=3.91)은 가장 높았다.

#### 6) 자기개발

빈도분석(긍정률)은 진로에 대한 명확한 비전소유의 긍정률은 51.3%로 가장 낮았다. 새지식과 기술습득의 긍정률은 71.3%로 가장 높았다.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활용의 긍정률은 56.1%이었다. 부족한 점 보완노력의 긍정률은 65.7%이었다. 실습담당자 멘토활용의 긍정률은 57.0%이었다. 능력의 장단점 파악 긍정률이 63.9%이었다. 기술통계는 역시 진로의 명확한 비전설정 평균(M=3.52)이 가장 낮았으며 신지식습득의 평균(M=3.88)이 가장 높았다.

<표 3> 빈도분석(긍정률)과 기술통계 결과 2

구분	항목	긍정률(%)	M	SD
의사소통 능력 (N=349)	논리적언변	56.1	3.73	.703
	보고서작성	53.0	3.73	.704
	<b>발표능력</b>	<b>37.2</b>	3.22	.913
	<b>동료이해</b>	<b>63.0</b>	3.70	.714
	문서이해	56.2	3.56	.777
	비언어표현	51.3	3.53	.737
	대상별대화	54.1	3.57	.722
	<b>평균</b>	<b>53.0</b>	3.58	-
직업윤리	<b>태도와자질</b>	<b>63.9</b>	3.73	.704
	윤리의식	74.0	3.91	.746
	직업자부심	67.3	3.79	.775
	소명의식	70.7	3.86	.751
	<b>평균</b>	<b>69.0</b>	3.82	-
자기개발 (N=349)	능력장단점	63.9	3.61	.717
	<b>신지식습득</b>	<b>71.3</b>	3.88	.721
	창의적활용	56.1	3.61	.745
	부족보완	65.7	3.74	.691
	멘토활용	57.0	3.61	.717
	<b>진로비전</b>	<b>51.3</b>	3.52	.783
<b>평균</b>	<b>60.9</b>	3.66	-	

전체 6개 영역별로 평균을 내보면 빈도분석(긍정률)은 기술활용 평균(M)이 55.8%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직업윤리가 평균(M) 69.0%로 가장 높았다. 기술통계는 직업윤리가 평균(M=3.82)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기술활용 평균(M=3.48)이 가장 낮아서 빈도분석(긍정률)과 기술통계분석이 일치하였다.

## 2.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

### 1) 연령

연령대별 집단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에 대해서 항목별로 사후 분석해 보았다. 진로비전 설정은 30대가 70대보다, 40대가 70대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더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30,

40대의 젊은 학우가 70대 학우보다 상대적으로 진로에 대한 비전이 높았다.

<표 4> 연령에 따른 진로비전설정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진로비전설정	1. 30대	15	3.87	.516	2.773*	1-5* 2-5*
	2. 40대	96	3.60	.788		
	3. 50대	158	3.49	.788		
	4. 60대	65	3.51	.831		
	5. 70대	15	3.00	.378		
	합계	349	3.52	.783		

\*\*\*:  $p < .001$ , \*\*:  $p < .01$ , \*:  $p < .05$

### 2) 학년

학년별 집단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에 대해서 항목별로 사후 분석해 보았다.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는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해결 긍정자세는 F값은 유의미했으나 실제 사후검정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5> 학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창의적 아이디어제시	1. 1학년	112	3.15	.796	3.704*	1-4*
	2. 2학년	60	3.42	.696		
	3. 3학년	115	3.41	.700		
	4. 4학년	61	3.49	.809		
	합계	348	3.34	.760		
	해결긍정자세	1. 1학년	112	3.56		
2. 2학년		60	3.85	.799		
3. 3학년		115	3.58	.701		
4. 4학년		61	3.75	.789		
합계		348	3.65	.746		

\*\*\*:  $p < .001$ , \*\*:  $p < .01$ , \*:  $p < .05$

### 3) 경제활동 유형

경제활동 유형별 집단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에 대

해서 항목별로 사후 분석해 보았다. 팀 협력은 프리랜서가 비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직업기초능력제고를 위해 비정규직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수, 교육과정 등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6> 경제활동에 따른 팀협력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팀협력	1정규직	82	3.87	.624	2.988*	2-5*
	2비정규직	49	3.61	.812		
	3무직	75	3.69	.854		
	4자영업	92	3.71	.719		
	5프리랜서	51	4.04	.662		
	합계	349	3.78	.744		

\*\*\*:  $p < .001$ , \*\*:  $p < .01$ , \*:  $p < .05$

### 4) 고교졸업 유형

고교 졸업 유형별 집단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에 대해서 항목별로 사후 분석해 보았다. 팀협력은 일반고가 검정고시 출신보다, 특성화고가 검정고시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집단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검정고시 출신을 좀 더 챙기고 학습이나 실습교육, 연수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7> 고교졸업유형에 따른 팀협력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팀협력	1일반고	136	3.79	.704	3.487**	1-4* 2-4*
	2특성화고	148	3.87	.693		
	3성인학습반	34	3.56	.991		
	4검정고시	18	3.28	.669		
	5방송통신고	13	3.85	.801		
	합계	349	3.78	.744		

\*\*\*:  $p < .001$ , \*\*:  $p < .01$ , \*:  $p < .05$

### 3. 다중회귀분석 결과

#### 1) 리더십

문제해결 긍정자세, 진로비전 명확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52.1%(수정 51.4%)이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문제해결 긍정자세, 진로비전 명확은 리더십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즉 문제해결에 긍정자세, 진로비전 명확성이 높아질수록 리더십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진로비전, 문제해결 긍정자세 순으로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8>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S.E.	$\beta$	t	p
리더십	(상수)	.164	.182	-	.904	.367
	문제해결긍정	.160	.067	.151	2.375	.018
	진로비전명확	.188	.060	.163	3.133	.002
F=74.723***, R <sup>2</sup> =.521, adj R <sup>2</sup> =.514						

#### 2) 논리적 말하기

근무태도력, 수집정보활용, 문제해결 긍정자세, 진로비전 명확, 도덕역량이 논리적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 설명력은 약51.8%(수정 51.0%)이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근무태도력, 수집정보활용, 문제해결 긍정자세, 진로비전 명확, 도덕역량은 논리적 말하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즉 근무태도력, 수집정보활용, 문제해결 긍정자세, 진로비전 명확, 도덕역량이 높아질

수록 논리적 말하기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근무태도력, 수집정보활용, 진로비전, 문제해결 긍정자세, 도덕역량 순으로 논리적 말하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9> 논리적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S.E.	$\beta$	t	p
논리적 말하기	(상수)	.377	.174	-	2.162	.031
	근무태도력	.231	.065	.217	3.564	.000
	정보활용	.163	.051	.171	3.194	.002
	긍정자세	.129	.056	.132	2.312	.021
	진로비전	.138	.051	.145	2.720	.007
	도덕역량	.125	.056	.125	2.240	.026
F=61.310***, R <sup>2</sup> =.518, adj R <sup>2</sup> =.510						

#### 3) 논리적 보고서 작성

근무태도력, 실현가능목표 설정, 컴퓨터활용능력, 진로비전 명확이 논리적 보고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54.1%(수정 53.3%)이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근무태도력, 실현가능목표 설정, 컴퓨터활용능력, 진로비전 명확은 논리적 보고서 작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즉 근무태도력, 실현가능목표 설정, 컴퓨터활용능력, 진로비전 명확이 높아질수록 논리적 보고서 작성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근무태도력, 진로비전, 컴퓨터활용능력, 실현가능목표 설정 순으로 논리적 보고서 작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0> 논리적 보고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S.E.	$\beta$	t	p
논리적 보고서 작성	(상수)	.349	.167		2.086	.038
	근무태도력	.250	.056	.234	4.465	.000
	가능목표설정	.090	.046	.102	1.988	.048
	컴퓨터활용력	.117	.034	.153	3.432	.001
	진로비전	.159	.051	.165	3.136	.002
F=67.189***, R <sup>2</sup> =.541, adj R <sup>2</sup> =.533						

4) 발표능력

실현가능목표 설정, 컴퓨터활용능력, 도덕역량, 진로비전 명확이 발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8.6%(수정 47.7%)이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실현가능목표 설정, 컴퓨터활용능력, 도덕역량, 진로비전 명확은 발표능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즉 실현가능목표 설정, 컴퓨터활용능력, 도덕역량, 진로비전 명확이 높아질수록 발표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컴퓨터활용능력, 도덕역량, 실현가능목표설정, 진로비전 명확 순으로 발표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1> 발표능력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S.E.	$\beta$	t	p
발표 능력	(상수)	.010	.219		.045	.964
	가능목표설정	.202	.064	.172	3.139	.002
	컴퓨터활용력	.247	.043	.267	5.729	.000
	도덕역량	.267	.081	.206	3.304	.001
	진로비전	.150	.065	.129	2.312	.021
F=53.964***, R <sup>2</sup> =.486, adj R <sup>2</sup> =.477						

5) 창의적 활용능력

진로비전,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가 지식과 기술을 업무에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66.0%(수정 65.6%)이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진로비전,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는 지식과 기술을 업무에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즉 진로비전,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능력이 높아질수록 지식과 기술을 업무에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진로비전,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순으로 발표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2> 창의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beta$	t	p
지식기술 활용능력	(상수)	.258	.140		1.850	.065
	진로비전	.256	.044	.242	5.840	.000
	창의적 아이디어	.110	.041	.112	2.690	.008
F=166.804***, R <sup>2</sup> =.660, adj R <sup>2</sup> =.656						

I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성인학습자의 직업 기초능력에 대한 변수분석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지속적 학업제고, 비교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진로 설계, 교육과정 재구조화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남권 지역 Y대학 미래융합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선정(김선희 외, 2012)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직업기초능

력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빈도분석(긍정률)과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해결능력은 문제원인모색능력의 긍정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긍정률이 가장 낮았다(김선희 외, 2012). 다음으로 기술(정보)활용능력은 컴퓨터와 기자재활용능력의 긍정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수집정보의 적극적 활용의 긍정률은 가장 높았으나 채 50%가 되지 않았다. 대인관계능력은 타인배려의 긍정률이 75.9%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리더십과 타인에게 방향제시의 긍정률이 가장 낮았다. 의사소통능력은 발표능력여부의 긍정률이 가장 낮았다(김선희 외, 2012). 반면 동료의견 이해능력의 긍정률이 가장 높았다. 직업윤리는 근무태도와 자질의 긍정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직업 윤리의식 긍정률은 가장 높았다(김선희 외, 2012; 조휘형, 2017). 마지막으로 자기개발은 새지식과 기술 습득의 긍정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진로의 명확한 비전 설정의 긍정률은 가장 낮았다. 따라서 컴퓨터와 기자재활용, 리더십(이재한, 임상호, 2017), 발표능력, 진로 비전 설정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고 이를 교양과목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전공과목에서도 교수 워크숍을 통해서 직업 소양 향상 및 강화 수업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술통계를 통한 직업기초능력의 항목별 평균(M)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 배려함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발표(프레젠테이션) 능력여부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김선희 외, 2012). 전체 6개 영역별로 평균을 내보면 빈도분석(긍정률)은 기술활용 평균(M)이 55.8%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직업윤리가 평균(M) 69.0%로 가장 높았다. 기술통계는 직업윤리가 평균(M=3.82)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기술활용 평균(M=3.48)이 가장 낮아서 빈도분석(긍정률)과 기술통계분석이 일치하였다. 전 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선희 외(2012)의 연구결

과와 비교하면, 직업윤리가 가장 높은 것은 공통적인 측면인데 반해 기술활용이 낮은 점은 차이점이다. 위 선행연구는 문제해결능력이 가장 낮았다. 이는 성인학습자이므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있기에 학령기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해결력은 높으나 기자재를 활용하는 기술활용능력은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방적인 교수자 강의중심이 아닌 성인학습자가 발표를 많이 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형태인 토론-토의, 세미나, 발제수업, 플립드러닝, 게임 학습, 역할연기 등을 많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효과가 증명된 액션러닝(이현주, 장경원, 2013), 프로젝트(문제) 기반학습(주현재, 김현우, 2016), 디자인 씽킹기반교육(이영주, 2020)의 적용의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변수별 직업기초능력의 항목별로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에서 진로비전은 30대가 70대보다, 40대가 70대보다 평균이 더 높았다. 30, 40대의 젊은 학우가 70대 학우보다 진로에 대한 비전이 높았다. 현재의 평일 야간 교양위주 온라인 수업중심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주간 수업 중 1개 과목을 교양으로 하고 온라인 위주의 형식적 수업이 아닌 오프라인 실습 위주 수업으로 진행(하오선, 김수영, 2018)하는 것이 직업기초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실습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 학습을 할 때도 녹화 위주가 아닌 실시간 온라인 학습을 통해 개인과 팀(장영은 외, 2021)을 구성하고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정한호, 2020)을 통해 학습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30대와 40대 멘토를 활용해서 60대, 70대 학우의 실습 도우미(멘토-멘티)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보인다.

학년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는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평균이 더 높았다. 따라서 고학년을 중심으

로 저학년, 특히 신입생으로 갓 들어온 1학년을 실습이나 학습 멘토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직업기초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멘토-멘티 활동은 저학년의 중도탈락률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박진희, 김수영, 2021)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별로 생기는 학습 수준 고저가 별로 없어서 만족감이 낮은(하오선, 김수영, 2018) 현실적 상황에서 멘토-멘티 활동(박혜경, 2021)은 학습자의 개인적 격차를 줄이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결국 소속감 증대로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다.

경제활동에서 팀 협력은 프리랜서가 비정규직보다 평균이 더 높았다. 따라서 직업기초역량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수, 교육과정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교졸업유형에서 팀 협력은 일반고가 검정고시 출신보다, 특성화고가 검정고시 출신보다 평균이 더 높았다. 따라서 검정고시생을 좀 더 챙기고 학습이나 실습교육에 참여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별도로 입학 전에 예비대학, 입학 후 별도 비교과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업기초능력교육과 연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직업기초능력의 세부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리더십은 문제해결에 긍정자세, 진로비전 명확성이 높아질수록 리더십이 높아졌다. 표준화 계수 크기를 비교하면, 진로비전, 문제해결 긍정자세 순으로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논리적 말하기는 근무태도력, 수집정보활용, 문제해결 긍정자세, 진로비전 명확, 도덕역량이 높아질수록 논리적 말하기도 높아졌다. 표준화 계수 크기를 비교하면, 근무태도력, 수집정보 활용, 진로비전, 문제해결 긍정자세, 도덕역량 순으로 논리적 말하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논리적 보고서 작성은 근무 태도력, 실현가능목표 설정, 컴퓨터활용능력, 진로비전의 명확성이 높

아질수록 논리적 보고서 작성능력도 높아졌다. 표준화 계수 크기를 비교하면, 근무 태도력, 진로비전, 컴퓨터활용능력, 실현가능목표 설정 순으로 논리적 보고서 작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발표능력은 실현가능목표 설정, 컴퓨터활용능력, 도덕역량, 진로비전의 명확성이 높아질수록 발표능력도 높아졌다. 표준화 계수 크기를 비교하면, 컴퓨터활용능력, 도덕역량, 실현가능목표설정, 진로비전의 명확성 순으로 발표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창의적 활용능력은 진로 비전의 명확성과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력이 높아질수록 지식과 기술을 업무에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높아졌다. 표준화 계수 크기를 비교하면 진로비전의 명확성,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순으로 창의적 활용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종합하면, 리더십 형성 및 제고, 논리적 말하기, 논리적 보고서 작성,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업무 적용은 공통적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 자세, 진로비전의 명확성, 도덕(윤리)역량, 컴퓨터 활용능력 등이 정적이며 인과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정 설계나 인재양성보고서 작성 시 평가중심의 ‘백워드 3단계 설계’를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이 평가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위해 개별 교수가 아니라 단과대학 공동의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과제나 논문작성을 위해 각종 자료, 논문, 학술지 등을 많이 참고하는 데 출처나 참고문헌 표시 없이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류영철, 2022)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가 저학년이나 학기 초기에 이뤄지는 것이 추후 고학년에 올라가서 올바른 학습 습관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재학하는 성인학습자의 직업기초능력을 분석하여 다른 평생교육 단과대학과 앞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신설

할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설계, 교양과목 설계, 진로 설계 등을 통해 운영·기획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학령기 대학생과 동일 규정, 체제를 적용함으로써 불거지는 교육과정, 평가, 수업운영 등 불일치하는 규정 개선과 제도 개선, 진로지도 체계성 점검(하오선, 2019) 및 재설계(이병준, 박정현, 2021) 등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학 내의 교과구성에서 교양교과 비중이 낮고 직업기초능력교과가 일부분이므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교과의 확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론중심이 아닌 실제 지식과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개선이 요구되며 직무경력과 자격증을 통한 학점인정제(RPL)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연구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기초능력향상방안은 교양교과뿐만 아니라 전공교과에서도 이론 및 프로젝트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 이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생에 적합한 직업기초능력 영역별·하위요소별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능력 보유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교과와 교양교과를 분리하지 않고 모듈화, 마이크로화 하는 방안과 교양과목 일부(P/F평가제)는 일반 학령기 학생과 성인학습자가 같이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교양과목 선택의 확장성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대학의 교육 기간 내에 직업기초능력을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직업기초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학과의 전공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습득하는 것이다. 예컨대 조별과제를 통해 팀워크(주현재, 김현우, 2016)나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박홍성, 고혜신, 2018; 최윤경, 2017), 기술활용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 운영은 직업기초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정부, 대학, 학과 차원에서 직업기초능력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직업기초능력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통합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김선희 외, 2012)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학년별 혹은 단계별 진행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설계(이애화, 최명숙, 2017)가 필요하다. 또 모든 대학이 입학절차부터 의사소통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을 중시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졸업 시 갖추어야 할 핵심능력 함양 프로그램 명세화도 검토할 만하다.

본 연구는 1개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례만을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수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면밀한 자료 수집을 통해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재학하는 성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상별, 지역별 맞춤 설계가 반영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

#### (1) 국내 학위논문 표기

최광열(2017). 직업기초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 및 IT계열 전문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2) 국내 단행본 표기

교육부(2022).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류영철(2022).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자의 자기 개발 역량분석. 라이프 사업단 협의회.

(3) 국내 학술지 표기

- 고장완, 김효선, 안현용(2021).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성과에 대한 참여 교원 인식 분석. *평생학습사회*, 17(4), 85-109.
- 구유정, 오석영, 박수연(2021). 성인학습자의 대학 생활 경험이 갖는 교육적 의미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평생학습사회*, 17(1), 27-48.
- 김선연, 유호정(2013). 지방 대학생 직업기초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HRD연구*, 15(4), 71-100.
- 김선희, 권영심, 신지숙(2012). 전문대학 재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증진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 *기업경영연구*, 42, 57-77.
- 김유리, 안도희(2015). 대학생 구직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평생교육·HRD연구*, 11(2), 1-32.
- 노정진(2011).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수 및 학생의 인식과 학생특성별 차이 연구. *HRD연구*, 13(2), 105-125.
- 류지은, 임정훈, 윤경신, 정진철(2016). 국내 직업기초능력 연구동향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8(3), 53-81.
- 문윤경, 오현주, 김미경(2019) 대학생 구직준비역량, 직업기초역량, 직업적응역량의 교육요구도 분석. *취업진로연구*, 9:4, 115-137
- 박동열(2006).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유형 진단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225-245.
- 박동열, 황영아(2009). 전문계 고교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2), 29-48.
- 박동열, 주인중, 진미석, 최선아(2010). 텔파이 조사를 활용한 직업기초능력 모형개발. *직업교육연구*, 29(4), 349-385.
- 박홍석, 고희신(2018). 의사소통프로그램이 취업 준비생의 직업기초능력으로서의 의사소통능력, 인지·정서적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8(2), 75-95.
- 박혜경(2021).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OUGHTOPIA*, 36(2), 99-140.
- 서금택, 조용개, 성명국, 조영재(2017). 대학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직업기초능력 조사. *아시아태평양융합*, 7(10), 297-308.
- 서성수, 심미경(2021).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양 교육과정 개설 방안 연구: Y대학 미래융합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5(1), 179-194.
- 신윤미, 오미자(2021).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요구분석. *교육문화연구*, 27(5), 213-237.
- 안현용(2020).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운영요인 만족도와 대학평생교육 만족도, 추천의도 간 관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438-450.
- 양경애, 하규수(2020). 중장년층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3), 45-55.
- 양은아(202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설계 오류. *평생학습사회*, 16(4), 1-34.
- 윤종찬, 한상훈, 박명신(2016).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만족도 및 학습성도가 사회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2), 579-589.
- 이병준, 박정현(2021). 평생교육체제 단과대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요구 분석 연구. *성인계속교육연구*, 12(1), 1-18.
- 이영주(2020). 디자인씽킹 기반의 직업기초능력교양교육개발. *사회복지경영연구*, 7(2), 1-19.
- 이은화, 윤소정, 허승희(2011). 대학의 직업기초능력 교육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차이. *직업교육연구*, 30(4), 51-67.
- 이에화, 최명숙(2017).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디지털 역량과 직업기초능력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학습양식 유형별 다중집단

- 분석. 교육문화연구, 23(3), 119-144.
- 이종찬(2019). 취업역량에 관한 대학생 교육요구도 분석. 취업진로연구, 9(2), 117-141.
- 이진욱, 김진영(2016). NCS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4년제 대학생들의 요구. 직업교육연구, 35(5), 75-96.
- 이재한, 임상호(2017).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영향. 산업증진연구, 2(1), 51-56.
- 이현주, 장경원(2013). 예비사회복지사의 직업기초능력향상을 위한 액션러닝수업설계 및 운영효과. 한국사회복지교육, 21, 40-68.
- 임영희, 심현(2018). 성인 및 재직자를 위한 대학학위과정 운영 실태분석: 이해관계자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4), 253-272.
- 장영은, 조우홍, 변길희, 윤경미(2021). 성인학습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적용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9(2), 423-424.
- 정기섭, 장영수(2008). 직업기초능력 제고를 통한 대학생 취업능력 향상 방안: 덕성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1), 109-139.
- 정혜진, 김경원(2018). 평생교육 단과대학 재학생의 참여동기와 선택속성간의 관계성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691-709.
- 조휘형(2018).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취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2(6), 245-265.
- 조휘형(2017).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하위능력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1(4), 333-362.
- 주민재, 연지연, 이현주(2021). 대학의 성인학습자 대상 의사소통교육 요구분석: 성인학습자와 교수자 교육행정을 대상으로. 리더십연구, 12(5), 263-302.
- 주현재, 김현우(2016). 전문대학에서의 NCS 직업기초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와 융합, 38(3), 327-358.
- 최윤경(2017).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을 통한 NCS 직업기초능력향상방안. 교양교육연구, 11(3), 525-554.
- 하오선(2019). 평생교육 단과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장애 요인 탐색과 학업중단의사에 따른 인식 차이-D대학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7), 39-56.
- 하오선, 김수영(2018).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습자의 학습실태 및 강의에 대한 인식. 교육종합연구, 16(4), 121-149.
- 홍아정, 조운성, 박치경(2015). NCS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대학생 교육요구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227-246.

## 2. 외국

### (1) 외국 단행본

Dearing, R.(1997). *Review on Qualifications for 16-19 Year Olds*, London: SCAA.

투고일자: 2023. 5. 15.

심사일자: 2023. 6. 4.

게재확정일자: 2023. 6. 8.

# Analyzing the vocational basic skills of adult learners in continuing education colleges: the case of University Y

Ryu, Young Chul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data and draw implications for the continuous academic improvement of adult learners, structuring of non-college programs, career redesign, program redesign, and restructuring of liberal arts curriculum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variables on the vocational basic skills of adult learners enrolled in a college of continuing education (Future Convergence College).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students enrolled in the Future Convergence College of Y University in the Southeast region. Measurement tools were selected through an expert council to analyze basic vocational skill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rate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frequency analysis showed that the positive rate and mean were relatively lower for problem monitoring, computer and equipment utilization, leadership, presentation skills, and setting a career vision.

Second, the results of 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 showed differences in age, grade, economic activity, and type of high school graduation. In particular, the mean was lower for those with higher age, lower grade, non-regular employment, and GED.

Third,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leadership enhancement, logical speech, report writing, presentation ability, and creative work application had causal effects on positivity in problem solving, clarity of career vision, moral competence, and computer literac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made.

First, the curriculum needs to be restructured and linked. As most of the courses for improving vocational basic skills are fragmented into liberal arts courses and lack

organic linkages with major subjects,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the curriculum to strengthen practical linkages between liberal arts and major subjects.

Second, measures to improve basic vocational skills should be taken not only in liberal arts courses but also in major courses in order to improve these skills in theory and project practice.

Third, a standardized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that allows students to acquire basic vocational skills in stages within the university education period.

*Key words: Continuing Education Colleges and Universities, Future Convergence College, Vocational Basic Skills, Vocational Basic Competency, Adult Learners*